

LA카운티 정부, 주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12일 종료

신청 서둘러야 ... 4 유닛 이하 주택, 유닛당 3만 달러까지 지급

LA카운티 정부가 소규모 건물주와 집주인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LA County Rent-Relief Grant Program)' 이 이달 12일(금) 마감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건물주들이 신청을 서두를 것이 권고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LA카운티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집주인에게 유닛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지급한다. 단, LA시 소재 주택은 지원되지 않는다.

자격은 소유한 건물이 4유닛 이하이어야 한다. 만일 4개 유닛의 모든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면 유닛당 3만 달러씩, 최대 12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소규모 건물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세입자 구제안은 성사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균형 잡힌 지원을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가 현재 체납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체납 세입자나 건물주의 가구 소득이 LA카운티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지원 임대료는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지원서 접수는 웹사이트(lacountyrentrelief.com)에서 할 수 있다.

OC한인회, '미주한인의날' 기념식 개최

11일 오전 11시 OC한인회관 ... "많은 한인 동참 기대"



오렌지 카운티(OC)한인회(회장 조봉남)가 1월 11일(목) 오전 11시 OC한인회관에서 미주 한인 이민 121주년 '미주한인의날' (Korean American Day) 기념식을 연다.

OC한인회 측은 "2024 희망찬 갑진년 푸른 용의해 새해가 시작되었다. 121년 전 한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이민으로 미국 땅을 밟은 102명의 이민 선조를 기리며 미주 한인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미주한인의날 행사를 개최한다."면서 "뜻 깊은 날에 많은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주한인의날은 미주 한인들의 미국사회에 대한

기여와 한미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로 이민한 한인들의 첫 도착일을 미국 연방의회가 법률로 제정한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연방의회가 2005년 12월 13일 하원에서, 16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을 법으로 통과시키면서 확정되었다.

한편 OC한인회는 2일 OC한인회관에서 한인회 임원과 이사, 한인 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무실을 열고 LA총영사관 출장소 유지와 한국 정원에 작은 덕수궁을 짓는 일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봉남 회장은 "지난해 OC한인회에 보내준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OC 한인 사회가 더 밝고 풍성해지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 송강호 영화 상영



▲ 영화 '택시운전사'의 송강호. 사진=academymuseum.org

LA 소재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협업해 한국의 대표 배우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를 소개하는 회고전 '송강호: Song Kang-ho'를 열고 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오는 1월 13일까지 계속된다. 행사 마지막 주인 1월 7일~1월 13일 주간에는 '택시운전사' (8일), '괴물' (11일), '밀정'(13일)등이 상연된다. 상연 시간은 모두 오후 7시 30분이다.

앞서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을 비롯해 '사도', '공동경비구역 JSA', '박쥐', '반칙왕' (2000), '살인의 추억' (2003), '밀양' (2007) 등이 상연된 바 있다.

박물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송강호를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한 명이며 그의 통찰력은 연기의 경계를 초월한다."고 소개했다.

KF 관계자는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이 지속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한국 영화 시리즈 상영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은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재단이 2021년 LA에 개관한 박물관이다. 이번 행사는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이 한국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기획한 세 번째 행사이다.

티켓은 아카데미영화박물관 누리집(www.academymuseum.org/en/calenda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 1. 풍부한 실무 경험
 - 2. 정확한 회계 업무
 -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회계사 오승윤

UC San Diego졸업
미 해양 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역임
Member of CS



빠른
환불

714.522.1120 FAX. 714.522.11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